

원호 『판비량론』의 발굴과 연구사 고찰

From Discovery to Recent Studies on Wonhyo's P'anpiyangnon

저자 (Authors)	김천학 Kim, Cheon-Hak
출처 (Source)	불교학보 89 , 2019.12, 9-29(21 pages) BUL GYO HAK BO 89 , 2019.12, 9-29(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3616
APA Style	김천학 (2019). 원호 『판비량론』의 발굴과 연구사 고찰. 불교학보, 89, 9-2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4 16: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 『판비량론』의 발굴과 연구사 고찰*

김천학

동국대학교 HK교수

- I. 서언: 『판비량론』 출현의 경위
- II. 일본에서의 연구현황
- III. 한국에서의 연구현황
- IV. 2016년 이후 새로운 발굴과 신발굴에 근거한 연구
- V. 향후의 전망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30일 동국대학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원효 『판비량론』, 문헌과 사상의 재조명”에 근거한 것임.

* 이 논문은 2018년 6월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행된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고필수감(古筆手鑑)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인 찬술 불교문헌 발굴”의 일환으로 집필되었음.

<한글요약>

본고는 1912년 원효의 본격적인 불교논리학 저서인 『판비량론』이 일본에서 발굴된 이후부터 2018년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연구된 『판비량론』 관련 논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효의 『판비량론』은 1912년 『서원(書苑)』에 『판비량론』의 회향계와 발문이 소개된 것을 출현의 시초로 한다. 그리고 현재 『판비량론』의 가장 긴 단간은 오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우발라실총서』제1권에 실려있으며, 후키하라 쇼신(富貴原章信)의 연구인 『판비량론 연구』가 실려있다. 후키하라 연구는 『판비량론』의 문헌학적 및 사상적 연구이며, 원효의 『판비량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2002년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의 보고를 통해 오타니대학 소장 원효의 『판비량론』에 각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국어학적 연구가 촉발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김성철의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를 일신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판비량론』의 단간이 고서점(2005년) 혹은 미술관(2017년), 개인장(2017년) 등의 단간 및 고필수감 형태로 출현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관심이 증폭되면서 최근에 연구가 재점화되었다. 향후 더 많은 단간의 출현을 기대한다.

주제어 : 원효, 『판비량론』, 단간, 각필, 고필수감, 후키하라쇼신, 고바야시요시노리

I. 서언: 『판비량론』 출현의 경위

원효의 『판비량론』은 메이지45(1912)년 『서원(書苑)』에 『판비량론』의 회향계와 발문이 소개된 것을 출현의 시초로 한다. 이것은 후에 『일본교정대장경: 이칭-만속장경』(1905-1912)(1-95-4)에 수록된다. 한편, 현재 오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판비량론』은 3지 분량 105행의 단간으로써 교젠(香巖)거사 간다 히사노부(神田久信, 1854-1918)가 메이지 20년경(1887년)에 구입한 것이다. 이후 그의 손자인 간다 키이치로(神田喜一郎, 1897-1984)가 소장하게 된다. 이 3지 분량의 단간 『판비량론』은 간다 키이치로가 조부 교젠거사 서거 50주기를 기념하여 1967년에 『우발라실총서(優鉢羅室叢書)』제1권을 간행할 때 영인함으로써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 간다 키이치로는 천재일우의 불전을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우담발라꽃에 비유하였는데, 귀중 불서의 공개에 앞서 그 문헌에 정통한 전문 불교 학자에게 해제와 연구를 부탁하였다.¹⁾ 『우발라실총서』제1권에 후키하라 쇼신(富貴原章信)의 연구 『判比量論の研究』가 실려있는 이유이다.

후키하라 쇼신의 연구는 원효의 『판비량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서지학적, 문헌학적, 사상적 연구가 진행되는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4월 2일 오오타니대학 『판비량론』에 신라 현토가 있다고 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의 보고를 통해 원효의 『판비량론』이 재부각되면서 오오타니대학 『판비량론』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촉발되었다. 이후 『판비량론』의 단간이 고서점(2005년) 혹은 미술관(2017년), 개인장(2017년) 등으로 출현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관심이 증폭되면서 최근에 연구가 재점화되었다. 이하 현재까지의 의미있는 연구를 지역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II. 일본에서의 연구현황

1. 최초의 연구

1967년에 발표된 후키하라 쇼신(富貴原章信)의 『판비량론』 최초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1) 高橋正隆 「本朝目錄史考: 紫微中台遺品『判比量論』の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大谷大學大谷學會, 1986)pp.139-142. 藤島建樹 「神田コレクションの魅力」 大谷大学図書館・博物館報(第22号), 2005年3月18日.

는 서언에서도 언급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후키하라의 연구의 제목은 『判比量論の研究』이며 총 9장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판비량론』과 직접 관련있는 장은 1. 『判比量論』の傳世 2. 本文と和譯 8. 本文の解説 9. 『判比量論』の逸文이다. 이하 각 장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1. 『判比量論』の傳世> 요약

<1. 『判比量論』の傳世>는 『판비량론』의 유전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정창원(正倉院) 문서 등을 통해 『판비량론』의 서지 및 유전 사항 등을 조사한 내용이다. 본 장은 (가) 주요서지 사항 (나) 주요유전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 주요 서지 사항

- a. 이러한 형태의 초서는 도지기레(東寺切)이라 불리며, 고보(弘法) 대사의 진적으로 존중되었다.(p.3)
- b. 제2지와 제3지의 이음 부분에 해당하는 종이뒷면(紙背)에 고묘황후(光明皇后, 701-760)와 관련 있는 「內家私印」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이 단간은 고묘황후의 서거 이전에 서사되었을 것이다. 「내가사인」으로 보아 『판비량론』이 자미중대(紫微中臺)의 경장에 수장되었던 유품임을 이야기해준다.(p.3)(p.9)
- c. 내가사인은 『서원』에 실린 『판비량론』 회향계에도 찍혀있다.
- d. 본 문 검토결과 제12절의 전문이 일본 조순(藏俊)의 『인명대소초(因明大疏抄)』에 「判比量論云」으로써 인용되어 있다. 이로써 105행의 단간이 원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p.3)
- d. 사경필체: 초서, 용지(料紙): 얇은 다비지(茶毘紙)(p.8)
- e. 전체 용지는 25지이며, 현재는 3지 분량의 105행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제7절부터 제14절까지 8절이 남아 있는데, 14절 이후에도 44절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p.5)

(나) 주요유전사항

- a. 혜소(慧沼, 650-714)가 『유식론요의등(唯識論了義燈)』에서 『판비량론』을 인용하기

- 때문에 672년(판비량론이 쓰여진 해)-714년(혜소 입적) 사이에 중국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p.5)
- b. 671년-740년(쇼소인正倉院 고문서에 처음 보임) 사이에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p.6)
- c. 일본에서는 772년 이전에 저술된 쯤주(善珠)의 『유식분량결(唯識分量決)』부터 1152년 조순(藏俊) 『인명대소초』 저술 시까지 『판비량론』의 인용이 확인된다.(p.10)

2) <2. 本文と和譯>과 <8. 本文の解説>

7절은 전반이 결락이라 원문만을 제시하였고, 제8절부터 제14절, 그리고 회향계가 원문과 함께 역주되었다. 내용은 추후 8장에서 자세히 고찰된다. 8장을 고찰하기 전에 3장부터 7장까지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번역 소개함)

<3. 원효의 약전(略傳)>, <4. 저작과 사상경향>, <5. 원효 이후의 신라불교>, <6. 유식불교와 인명>, <7.현장의 인명>

위와 같은 목차를 통해 후키하라 쇼신이 원효의 『판비량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효를 둘러싼 신라의 사상배경과 유식비량 등 인명 자체의 문제를 설명하여 『판비량론』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장은 2장에서 간략히 번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때는 『판비량론』 원문은 제시되지 않는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해석 가운데 중요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	핵심내용	원효의 주장	주장의 주요 이유	비고
8절	심분설(心分說)	4분설을 비판하고 3분설을 취함- 자은, 서명과 다름.	4분설 논증에 대한 인(因)의 부정과(不定過)를 제시	태현, 『성유식론하기』, 쯤주, 『인명소명등초』에서 인용.
9절	8식 증명	『무성섭론』 비량을 증명		기(基) 참조 추정.
10절	8식의 구유소의(俱有所依)	『성유식론』 비량에 대한 비판: 원효는 8식의 구유소의를 부정. 난타의 설과 일치.	인의 부정과. 상위결정과 제시	태현, 『성유식론하기』에서 인용. 『성유식론』 비량이 아닌 자은의 비량. 원효의 주장은 서명, 자은, 도중, 태현의 설과 일치하지 않음.
11절	들리는 소리[所聞聲]의 원인을	원효의 문비(文備)비판. 상위결정 비량 제시-자은	인의 부정과.	문비의 『이문론소(理門論疏)』 인용. 기의 『인명소』와 부분적

	둘러싼 상위 결정	의 해석과 다르며, 일본의 젠주는 부정과의 이유로 원효 비판.		일치. 『因明疏明燈抄』, 『因明大疏抄』에서 인용.
12절	상위결정비량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원인은 부정인 - 기와 해석이 다름.	결정적으로 다른 원인은 정인(正因)도 상위인(相違因)도 아니다.	문궤(文軌)를 인용함. 기의 『인명소』와 부분적 일치. 『인명소명등초』, 『인명대소초』에서 인용.
13절	오종성	무성유정의 불성불 주장	부정과	
14절	이공(二空)	실아실법을 포함.		끝부분 결락

3) <9. 『판비량론』의 일문>

자은 『인명소』 권 중에 있는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견해(젠주 『유식분량결』, 젠주 『명등초』에 인용됨), 승근비량인 대승불설에 관한 원효의 견해(『대소초』에 인용됨) 그리고 순경과 원효를 둘러싼 상위결정비량, 그 외 태현의 『성유식론학기』, 혜소의 『유식론요의등』 등에 인용된 원효의 『판비량론』 설에 대해 번역과 함께 간략한 해석을 붙이고 있다.

이상이 『판비량론』에 대한 최초의 연구인 후키하라 쇼신의 『판비량론의 연구』의 내용이다. 이후는 그의 연구에 자극받아 보강 내지 극복하는 일련의 연구 작업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경주 동국대 김성철교수의 연구이다. 한편, 후키하라는 위 내용을 1969년 『일본불교』(일본불교연구회) 29호에 요약발표하는데, 이 때 추기사항으로 간다 고서점 일성당(一誠堂)의 초대주인인 사카이 우키치(酒井宇吉; 1887-1940)가 소장했던 『판비량론』 단간 수감(테카가미, 手鑑) 11행을 번각해서 소개하였다²⁾.

2. 서지 및 문헌학적 연구

다음으로 후키하라 쇼신이 실측 조사, 정창원 문서 등의 조사는 모두 다카하시 마사다카(高橋正隆)가 직접 관여했다고 진술하듯이,³⁾ 『판비량론』의 서지적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이 1986년 다카하시 마사타카(高橋正隆)의 연구이다.⁴⁾ 따라서 이 연구는 후키하

2) 2019년 4월 24일 오치아이 히로시 교수의 주선으로 오카모토 잇페이 선생과 함께 사카이 우키치본 원본을 확인하였다.

3) 富貴原章信, 『判比量論の研究』, p.11.

4) 高橋正隆, 「本朝目錄史考: 紫微中台遺品 『判比量論』の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 38집(大谷大學大谷學會, 1986), pp.139-188.

라 소신의 연구와 많은 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해설만을 소개한다.

- a. 『판비량론』이 고보다이시필로서 애장된 것은 1810년 이후이다.(p.142)
- b. 사용된 종이는 다비지(茶毘紙)가 아니라, 배접을 제거한 결과 매우 얇은 마지(麻紙)이다.(p.143)
- c. 사카이 우키치(酒井宇吉)의 단간에는 ‘弘法大師筆 東寺切’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다.(p.145)
- d. 현재 여러 문헌에 인용된 부분과 3지를 합하면 1/8 정도가 확인된 셈이다.(p.145)
- e. 정창원문서에 19회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 목록에서 『판비량론』이 확인된다.(p.148-150)

한편, 기존의 서지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1994년 미야자키 겐지(宮崎健司)의 「判比量論斷簡について」라는 발표문이며, 1995년 『大谷學報』에 실린다. 이것은 2006년 『日本古代の寫經と社會』 제1장에 「大谷大學博物館藏 『判比量論』 斷簡の性格」으로 확대되어 수록된다. 이 두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주장을 보면

- a. 「내가사신(內家私印)」은 고묘황후 재세 시부터, 고묘황후 사후에 후지와라(藤原)씨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 b. 『판비량론』이 신라에서 서사되고 심상(審祥)이 장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 c. 처음에는 미치요(아가타노 이누가이노 미치요 景犬養三千代, 고묘황후의 어머니)의 장서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미치요의 몰년(665?-733) 이전에 서사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로 『판비량론』의 서지사항 및 유통 정보가 거의 망라되었다. 이후는 종이에 대한 견해 외에는 기존 연구 성과가 계승된다.

3. 사상적 연구

1987년 11월 나가사키 호준(長崎法潤)은 한국 국토통일원과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이 주관한 원효 학술대회에서 앞의 두 논문을 대폭 참조해가면서 「元曉大師と因明について」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판비량론』 8절, 10절, 11절, 12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는 원효가 유식의 정통파와는 다르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11절, 12절을 분석하면서 원효가 디그나가의

입장에 서있다고 해석하였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는 「元曉の思惟方法の一考察-唯識無境比量について」을 통해 원효의 유식비량에 대한 입장을 다루면서, 원효가 오류론에 경도된 진정한 인명학자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일본에서의 『판비량론』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적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다가 유식 사상이 전문이고 인명에 탁월한 모로 시게키(師茂樹)가 『論理と歴史』(2015년)에서 원효 『판비량론』의 산일문에 해당하는 유식(唯識)비량과 장진(掌珍)비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4. 국어학적 연구

2002년 4월에 『판비량론』에서 각필이 발견되었고, 이 신라문자가 가타가나 기원일 수 있다는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의 가설이 기사화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판비량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국어학 분야의 연구가 촉발되었다. 2002년 4월 3일자 교토신문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글: 가나가나의 기원은 한반도인가. 신라의 불전으로 다시 읽는 문자. 도쿠시마문리대학교수가 발표.

<기사내용요약> 한반도·신라에서 쓰여지고 「일본의 가타가나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오오타니대학 소장 8세기 『판비량론잔권』으로부터 발견하여, 4월 2일 동대학에서 발표하였다.⁵⁾

고바야시의 주장은 강연을 통해 확산되었고, 강연 테이프를 풀어서 2003년 1월에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로 소개된다. 여기에는 각필과 범패부가 소개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3년 3월 히로시마(広島)도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 「これからの角筆研究—東アジアを視野に」에서 재차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고바야시의 주장은 공동조사에 참가한 한국학자들이 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고바야시는 2004년에 간행된 『角筆研究導論-동아시아편-』의 <제2장 4절 신라의 각필문헌>(pp.260-316)에

5) カタカナのルーツは朝鮮半島?新羅の仏典に読み示す文字. 徳島文理大教授が発表(京都新聞 2002-04-03) 朝鮮半島新羅で書かれ「日本のカタカナのルーツ」になった可能性のある文字を、小林芳規徳島文理大教授が大谷大学(京都市北区)所蔵の8世紀の仏典『判比量論殘卷』(国の重要文化財)から見つけ、2日、同大学で発表した。

서는 일곱 번에 걸친 『판비량론』의 조사에서 발견된 23곳의 각필과 암송의 선율을 나타내는 범패부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2년의 발견을 기점으로 어학적 연구가 이어졌다.

한편, 『판비량론』의 범패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이와타 소이치(岩田宗一)가 2003년 고바야시 연구에 의존하여 『大谷學報』 82-2에 「『判比量論』の角筆譜について」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범패부호의 기원이 신라에 있을 가능성(p.93)에 대해서 피력하였다.

Ⅲ. 한국에서의 연구현황

1. 최초의 소개

『판비량론』은 일본 학계에 소개된 지 2년 후 「대한불교신문」에 당시 일본 유학중이던 김지견 박사에 의해 1969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신발견 신라원효술 판비량론과 그 주변」이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한국학계에 그 존재가 소개되기에 이른다. 이후 1973년에 이영무 「원효대사저 『판비량론』에 대한 고찰」이 발표된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최초로 연구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범술의 초서 『판비량론』의 번각이 실려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내용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유식설 소개 정도에 그쳤다.

2. 초기의 사상적 연구

한국에서 『판비량론』은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당시 인도철학, 인도인식논리학의 권위자였던 원의범이 1984년에 발표한 「판비량론의 인명론적 분석」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번역하지 않았던 제7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용 추정을 하면서, ‘非顯淨土’라는 말이 宗(주장)의 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하면서 정토의 실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하는 점이 눈의 띠다. 제9절에서는 판자가 8식을 인정하는 것은 성교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각 절의 비량의 수를 계산하여 논리식의 전개를 통해 설명한다는 점도 특필할 수 있다. 그리고 판자를 원효로 단정하지 않고 법상가의 입장에서 『판비량론』을 논술한 것으로 본다.

이후 『판비량론』은 1988년에 신현숙 『원효의 인식과 논리』에서 한국어로 전문 번역되면서 그 내용이 연구된다. 본 서에서는 『판비량론』 일문을 모아서 간략하게나마 검토하고 있

다. 여기서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해 상위결정비량을 만든 것은 순경(順璟)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판비량론』 본문에 대해서는 <제7절: 사유대상에 대한 비판. 제8절: 심적분화작용의 분석. 제9절: 지각과 판단의식. 제10절: 삼의식의 분류. 제11절: 존재의 실유사상에 대한 비판. 제12절: 사유법칙의 모순적 비판. 제13절: 무성유정의 성불론. 제14절: 존재의 가유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하여 논구한다.⁶⁾ 한국에서 최초로 『판비량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저서이지만, 단적으로 제8절 심적 분화작용의 분석에서 나오는 논파대상의 비량을 원효 것으로 해석하는 등(앞의 후키하라, 뒤의 김성철은 논파 대상의 비량으로 보았다) 약간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지만, 『판비량론』 단간 및 일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의 길을 터 놓았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의 『판비량론』 연구는 정체된다. 1994년에 원효의 회향계를 통해 원효사상을 논하는 가운데 『판비량론』의 회향계에서 원효의 서원 사상을 볼 수 있다고 한 견해 정도가 있을 뿐이다.⁷⁾

3. 2000년-2015년까지의 사상적 연구

본격적인 『판비량론』 연구는 아니지만 1997년 김치온의 박사학위논문 「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전용」에서 일부 다루어진다. 즉, 오타니대학소장 『판비량론』 단간 가운데 ‘들리는 성질의 원인(所聞性的의 因)’(11절)과 상위결정(相違決定)(12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 후 2001년 「아뢰야식의 존재에 대한 인명논리적 증명과 그 소재에 관한 고찰」에서 역시 『판비량론』의 일부인 8식의 존재증명(9절)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대체로 기존의 원의범, 신현숙의 설을 답습하였다.

또 김상일에 의해 『판비량론』과 서양철학과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그것이 2003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판비량론」, 2004년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원효의 논리로 본 칸트의 이율배반론」이다. 원효의 논리사상을 서양철학과 비교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판비량론』의 사상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는 김성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이다. 이 연구는 2001년 『불교원전연구』에 『판비량론』의 주석을 게재한 이후 몇 편의 단편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대폭 보강하여 저술한 것으로 『판비량론』의

6) 1992년에는 전치수의 「원효대사 판비량론」, 『민족불교』(1992.11)이 있으나 이미 지적되어있듯이 본인의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가사키 호준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7) 韓泰植, 「頌歌에 나타난 元曉思想」, 『東國論叢』 34-人文社會科學篇, pp.13-16.

사상적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저서이다. 대강의 목차를 보면 어떤 연구 성과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판비량론』 연구사 개관

제1부 『판비량론』 분석을 위한 기초

제1장 현존자료와 교정보

제2장 『판비량론』에서 거론되는 사인들

제2부 산일부 연구

현존자료 분류

제1장 현장의 유식비량과 그에 대한 원효의 비판

제2장 승군비량에 대한 현장의 비판과 원효의 개작

제3부·제4부 완전부 연구(8절-13절)

완전부1-유식학과 관련된 잘못된 비량 비판

완전부2-인명학의 여러문제에 대한 고찰

제5부 결손부 연구(7절, 14절, 단편잔간)

부록1 『판비량론』의 원문과 국역 및 일역

부록2 범한대역 『인명입정리론』

본 연구는 원문의 재검토부터 산일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유식비량, 승군비량 포함) 및 기존 오오타니대학 소장본 『판비량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제 10절의 설명에서는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성철은 『판비량론』의 성격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서 “『판비량론』은 추론함 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라기보다 유식·인명·비담 등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추론을 비판하고 올바른 추론을 제시하기 위해 저술된 것”(p.22)이라고 하면서, 『판비량론』의 원효는 화쟁가이기보다 치열한 논쟁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상 분석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을 지적한 제10절에 대한 연구사만을 대상으로 『판비량론』 사상 연구를 정리하여, 그간의 한·일의 사상적 연구의 추이를 재정리하고자 한다. 의미있는 연구는 후키하라 쇼신, 원의범, 신현수, 김상일, 김성철로 축약할 수 있다. 각 연구의 주요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 후키하라 쇼신

비판대상은 『성유식론』의 비량이 아니라, 자은의 비량임.

내용은 8식의 구유소의(具有所依)를 둘러싼 비량임.

원효는 8식의 구유소의를 부정. 난타의 설과 일치함.

원효의 주장은 『유식론』의 정의와 반대임.

서명, 자은, 도중, 태현의 설과 다르다고 판단함.

1984 원의범

5량 가운데 세 번째 논증식은 판자의 입론임.

제8식에는 색근이 없다는 것이 주장인 듯 함.

1988 신현숙

『성유식론』과 반대되는 세 번째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4번째, 5번째의 추리를 세워 원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증으로 삼고 있음.

『금강삼매경론』의 주장을 갖고와서 원효의 주장을 보충함.

2003 김상일

핵심주제어는 ‘심소법’이며, 4분설을 비판하기 위해 제10절을 썼음.

제1비량은 호법, 제2비량은 난타, 제3비량은 원효의 입장임.

원효의 현장 비판은 현장이 대상과 메타의 관계를 잘 못 파악한데 대한 비판이며, 원효의 회통은 대상과 메타, 메타와 메타를 상통하게 하는 것임.

2003 김성철

『성유식론』 비량의 근거를 찾음.

5량의 구성- ① 아뢰야식에 구유소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논증식1> ② <논증식1>을 상위 결정의 오류에 빠뜨리는 <논증식2> ③ 제7마나식과 제8아뢰야식에는 구유하는 소의근이 없음을 증명하는 원효의 <논증식3> ④ 의근에 6식의 심심소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의근은 능연성이 아닌 쉼이 되느는 적대자의 귀류적 <논증식5> ⑤ 의근은 색법이라는 적대자의 주장을 상위결정의 오류에 빠뜨리는 원효의 논증식

기존 후키하라 연구의 문제점을 <원문복원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로 나누어 서술함.

이상과 같이 제10절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 김성철의 연구가 논증식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읽다보면 초보자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맥과 관련된 문헌 안에서 주장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헌학적 방법에서 사상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로써 김성철 연구의 특징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생각된다. 김성철은 본 서의 출판 이후에도 『판비량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논문을 2017년까지 꾸준히 발표해왔다. 김성철 연구 이후에는 『판비량론』에 각 절에 대한 논구가 여러 편 있다.

우선, 2008년 장민석은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에서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 비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김성철 견해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김현희는 2014년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오식삼삼(五識三相)’의 개념」과 2015년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알라야식’의 의미」에서 제8절과 제9절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그 주된 주장의 근거는 ‘오식삼삼’의 개념에 대해서 ‘생주멸’이라는 김성철의 해석과는 달리 아뢰야식의 삼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듯하다. 이외에도 몇몇 논문이 있지만, 김성철의 『판비량론』 해석을 극복하는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권서용의 논문 「원효의 불확정[不定] 원리와 법칭의 선형적 원리에 관한 연구」처럼 『판비량론』 제11절과 법칭의 논리를 비교한 논문이 있을 뿐이다.

4. 국어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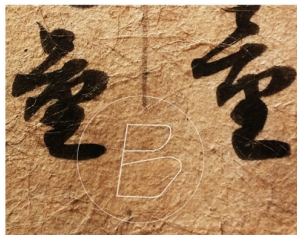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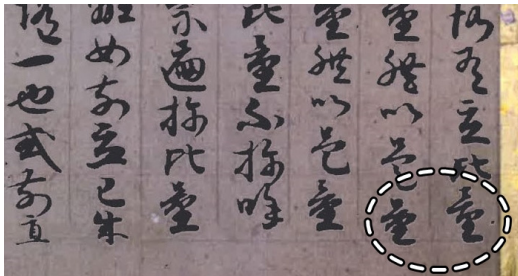
오오타니대학소장본 『판비량론』에 각필 및 범패부 존재가 알려진 2002년 4월 이후 2003년 2월 고바야시의 주장이 번역되어 「신라경전에 기입된 각필문자와 부호-京都·大谷大學藏 『판비량론』에서의 발견」으로 한국의 『구결연구』 10호에 실리게 된다. 여기서는 각필문자, 각필부호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며, 『판비량론』의 부호가 일본 가타가나의 기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자료임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고바야시 교수와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김영욱은 2004년 「『판비량론』의 국어학적 연구」에서 『판비량론』에서 각필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각필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고바야시교수의 논문 「일본 훈점의 일원류」가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여기에서 일본 범패부의 기원이 신라라는 주장, 가나 부호가 신라어일 수 있다는 고바야시의 일련의 주장이 다시 피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구체화되어 2009년에 일본어 논문 「日本の經典訓讀の—源流—助詞イを手掛りに」를 집필할 때 일본 경전훈독의 신라 기원을 주장하기 위해 『판비량론』도 그 중 한 한 예로 들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심상(審祥)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IV. 2016년 이후 새로운 발굴과 신발굴에 근거한 연구

1. 새로운 발굴의 경위

『판비량론』을 계속 조사하던 고바야시 교수는 오치아이 히로시 소장본 『판비량론』 단간의 각필조사를 오치아이 교수에게 의뢰하였으며, 2016년 3월 17일 동경에서 고바야시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재영교수와 동국대 HK교수인 필자가 공동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가 동행하였다. 이것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의 일환이었다. 이 조사에서 각필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2016년 4월 20일 조선일보에 기사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3일 고토(五島)미술관, 3월 4일 미츠이(三井)기념미술관 소장본의 『판비량론』 단간을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와 정재영 교수 그리고 동국대 불교문화



(조선일보 2016년 4월 20일 기사로부터)

연구원의 박보람 초빙교수(현재 충북대 교수)가 조사하였다. 이것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토대사업의 일환이었다. 여기서도 각필이 발견되었다. 이어 2017년 6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나자와문고와 동국대학교 HK사업단이 공동으로 특별전 「안녕하세요! 원효법사」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오치아이 소장본, 고토미술관본, 미츠이기념미술관본 『판비량론』 단간과 함께 새로 발굴된 바이케이(梅溪)본의 4본이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특히 바이케이본은 이 때 처음 공개되었다. 바이케이본에 대해서는 6월 24일 가나자와문고와 동국대학교 HK사업단의 공동학술대회 「원효와 신라불교사본」에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게이오대학 강사가 내용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새로운 발굴은 아니지만, 2016년 8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정재영 교수, 권인한 교수가 오오타니대학 소장 『판비량론』의 각필조사를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도 동국

대 HK교수인 필자가 HK사업의 일환으로 동행하여 필요한 행정적 연락과 통역을 담당하였다.

그동안의 『판비량론』에 대한 각필조사는 고바야시 교수가 항상 참가했지만, 이 때는 처음으로 한국 연구자만으로 구성되어 각필을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 때 새롭게 각필이 발견되었다. 3번에 걸친 『판비량론』의 조사는 각필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 사회에 새로 소개된 바이케이본과 더불어 『판비량론』 단간이 새롭게 발견됨으로써 내용 연구도 더불어 진행되었다.



(필자 촬영)

2. 발굴에 따른 연구 현황

우선, 오치아이본의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20일 기사화 된 후 바로 김성철에 의하여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 필사본의 교정과 분석」(2016)이 발표되었다. 오치아이 소장본은 9행인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은 이미 소장자가 밝힌바 있다.⁸⁾ 여기에 대해서 김성철은 오치아이 판독을 보완하면서, 내용에 관해서 앞부분(제1행-제5행)은 「인식수단의 종류에 대한 논의」, 뒷부분(제6행-제9행)은 「삼세실유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분석하여 내용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는 정재영 교수, 불교학술원장, 김호성 교수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로서의 사사표기를 싣고 있지만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여기에는 절차 상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2005년 「古筆への 초대(誘)」라는 도록에 실린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이후 한·일 공동 조사였지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주선 한 것은 고바야시 교수였고, 조사 주체도 고바야시 교수였다. 그런데, 각필을 조사한 고바야시 교수도 모르게, 소장자 오치아이교수도 모르게 『판비량론』 단간이 연구된 것은 비록 도록을 구하면 볼 수 있고, 각필이 아닌 사상적인 연구라 할지라도 노구의 일본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었고, 노구의 학자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연구자의 학자적 양심에 의문을 던졌다.

한편 권인한은 고바야시교수와 정재영교수의 조사보고를 활용하여 2016년 「고대 한국한 자음의 연구(1)-최근 발굴된 각필 성점(聲點) 자료를 중심으로-」를 집필하면서 성점을 분석하였다. 2017년 새롭게 발굴된 고토미술관본, 미즈이기념관본, 바이케이본 『판비량론』 단

8) 国文学研究資料館(編集), 『古筆への誘い』(三弥井書店, 2005), pp.134-135.

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2017년의 김영석과 일본에서는 2018년 오카모토 잇페이의 논문으로 내용이 연구되었다.

김영석의 논문은 우선, 조사 주체자인 고바야시 교수의 각필조사 결과를 게재한 후에 내용 분석에 들어갔으며, 사진 게재를 위하여 고도미술관과 미즈이 미술관의 허락을 얻었다. 고도본의 분석에서는 이식비량(離識比量)을 제시해 유식비량(唯識比量)에 상위결정부정과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문계의 『인명입정리론소』의 의거하는 바가 크다고 논하였고, 또 하나는 정도비량에 대한 비판 내용임을 밝혔다. 미즈이본에 대해서는 『대승광백석론』으로부터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일면을 서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기의 『인명입정리론소』, 『성유식론술기』를 충분히 습득한 뒤에 『판비량론』이 저술되었다고 한다.

오카모토의 논문은 우선 서지정보부터 전한다. 여기서는 종이를 기존의 다비지, 마지와는 달리 저지(楮紙)라고 하여 다르다. 더 나아가 기존의 오오타니본, 개인장본이 모두 저지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존 견해와는 다르다.⁹⁾ 내용상으로는 전주의 『인명론소명등초(因明論疏明燈抄)』에 인용되어 있고, 내용 가운데 문계의 『십사과류소(十四過類疏)』의 문장이 인용됨을 밝혔다. 또한 문계의 『십사과류소(十四過類疏)』의 내용과 원효의 『판비량론』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위결정식을 만든 장본인이 원효가 아니라 순경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오카모토가 바이케이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한 도쿄박물관 소장 『판비량론』 단간에 대해서는 2018년 岡本一平, 「元曉撰『判比量論』の諸問題」에서 소개하면서 자오비량(自悟比量)이라는 용어가 원효에 기원을 둘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오오타니본에 대한 새로운 각필조사 결과는 권인한이 2016년 「원효사의 회향계 이야기-『판비량론』 권말 회향계를 중심으로」에서 범패부의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음을 보고 했으며, 더욱 구체적인 논문이 2018년에 권인한 「大谷大學藏『판비량론』의 판독과 해석」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바탕 종이를 저지로 판단하였다.¹⁰⁾ 둘째, 고바야시교수의 미보고 각필이 발견되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원문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독과 다른 자도 있어서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

한편, 2018년 11월 29일은 『판비량론』의 국어학적 연구사에서 뜻 깊은 날이다. 일본의 오치아이소장본과 바이케이본을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각필조사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사보고는 보안을 거쳐 향후 학술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9) 최근 오타니대학 미야자키교수에게 물어본 결과, 과학적 조사는 아니지만 마지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지로 본 것은 종이 전문가의 조사 결과이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듯이 한국 연구자도 역시 오오타니대학 『판비량론』의 바탕종이를 저지로 보고 있다.

10) 이것은 정재영교수가 저지라고 보고했던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결과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종이 전문가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V. 향후의 전망

이상으로 『판비량론』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김성철은 2001년(오오타니본 번역), 2003년(산일문의 번역 포함)에 『판비량론』 원문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재로써는 김성철의 연구가 가장 최신의 원문이며 가장 최신의 번역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성과는 아쉽게도 CBETA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오타니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eb.otani.ac.jp/museum/kurashina/07_hanhiryouron/honkoku_01a.html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비량론』 판독문은 후키하라본을 극복한 새로운 본인데, 미야자키 겐지 교수가 새롭게 번각하여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시기 상 김성철의 연구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판비량론』은 에도시대 이후 데카가미(手鑑) 형태로, 고보대사필(弘法大師筆)인 도지기레(東寺切) 형태로 전승되었는데, 현대에 들어와 단간이 도록에 소개되기도 하고, 단간의 소장자가 고서점에 내놓기도 하고, 소장 사실을 알려오기도 하면서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지금도 『판비량론』의 원문은 어딘가에서 데카가미로, 고보대사필로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간들이 차례차례 발굴되어 『판비량론』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이하 지금까지 거론한 『판비량론』 연구를 연도별로 소개한다. 아울러 웹사이트도 함께 소개한다.

- 1912 黒木安雄 編, 『書苑』 1卷 第7号(東京: 法書會)
- 1967 富貴原章信, 『判比量論の研究』, (優鉢羅室叢書)
- 1969 富貴原章信, 「元曉, 判比量論の研究」, 『日本佛教』 29호(日本佛教硏究會)
- 1973 이영무, 「원효대사저 『판비량론』에 대한 고찰」(『학술지』 15, 건국대학교학술硏구원)
- 1984 원의범, 「판비량론의 인명론적 분석」, 『불교학보』 21(동국대불교문화硏구원)
- 1986 高橋正隆, 「本朝目錄史考: 紫微中台遺品 『判比量論』の研究」, 『大谷大學硏究年報』(大谷大學大谷學會)
- 1987 長崎法潤, 「元曉大師と因明について」(김지건 편,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대한전통불교硏구원, 1989)
- 1987 中村元, 「元曉の思惟方法の一考察-唯識無境比量について」(김지건 편, 『원효성

- 사의 철학세계』,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 1988 신현숙, 『원효의 인식과 논리』(민족사)
- 1994 韓泰植, 「頌歌에 나타난 元曉思想」, 『東國論叢』 34-人文社會科學篇.
- 1995 宮崎健司, 「判比量論 斷簡について」 『大谷學報』 74-4.
- 1997 김치은 「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전용」(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2001 김치은, 「아뢰야식의 존재에 대한 인명논리적 증명과 그 소재에 관한 고찰」, 『보조사상』15 (보조사상연구회)
- 2001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佛敎原典研究』 2(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2003.2 小林芳規,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京都·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發見」, 『구결연구』 10호(구결학회)
- 2003.1 小林芳規,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學報』 82-2.
- 2003.1 岩田宗一, 「『判比量論』의 角筆譜について」, 『大谷學報』 82-2.
- 2003.3 小林芳規, 「これからの角筆研究—東アジアを視野に」(広島大學付屬圖書館 100周年記念講演)
- 2003.6 김상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로 풀어본 원효의 판비량론』(지식산업사)
- 2003.10 김성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지식산업사)
- 2004 小林芳規, 『角筆研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汲古書院)
- 2004 김상일, 『元曉의 判比量論 비교 연구 : 원효의 논리로 본 칸트의 이율배반론』(지식산업사)
- 2004 師茂樹, 「현장의 유식비량과 신라불교」,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4)
- 2004 김영옥, 「『판비량론』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12(구결학회)
- 2005.3 藤島建樹, 「神田コレクションの魅力」大谷大学図書館・博物館報(第22号)
- 2006 宮崎健司, 『日本古代の寫經と社會』(東京:塙書房)
- 2006 小林芳規, 「日本 訓點의 一源流」,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 2008 장민석, 「현장의 유식비량에 대한 원효의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철학논구』 36(서울대철학과)
- 2009.6 小林芳規, 「日本の經典訓読の一源流—助詞イを手掛りに」, 『汲古』 55(汲古書院)
- 2014 김현희, 「元曉의 『判比量論』에서 ‘五識三相’의 개념」, 『한국불교학』 71(한국불교학회)

- 2015 김현희, 「元曉의 『判比量論』에서 ‘알라야識’의 의미」, 『한국불교학』 74(한국불교학회)
- 2015 師茂樹, 『論理と歴史』(ナカニシヤ出版, 2015)
- 2016 고영섭, 「芬皇 元曉의 十門和諍論과 判比量論의 내용과 사상사적 의의」, 『東岳美術史學』 19(동악미술사학회)
- 2016 김성철, 「오치아이 소장 『판비량론』 필사본의 교정과 분석」, 『불교학보』 74(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2016 권인한, 「원효사의 회향계 이야기-『판비량론』 권말 회향계를 중심으로」, 『문헌가해석』 76(문헌과해석사)
- 2016 권인한,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1)-최근 발굴된 각필 성점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37집(구결학회)
- 2017 김영석, 「원효 『판비량론』의 새로운 발굴- 고토미술관 및 미즈이기념미술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81(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 2018 권인한, 「大谷大學藏 『判比量論』의 判讀과 解釋」, 『안병희선생님 10주기 추모논문집』
- 2018 권서용, 「원효의 불확정[不定] 원리와 법칭의 선험적 원리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불교문화』 35(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2018 岡本一平, 「新出資料 梅溪旧藏本-元曉撰『判比量論』断簡について」, 『불교학보』 83(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2018 岡本一平, 「元曉撰『判比量論』の諸問題」, 『東洋学研究』 第55号(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 2019 權仁瀾, 「大谷大學藏 『判比量論』 角筆點의 언어문화사적 의의」, 『구결연구』 42(구결학회)

2004년부터 大谷大學博物館 제공 『判比量論』 사진이미지와 번각

http://web.otani.ac.jp/museum/kurashina/07_hanhiryouron/honkoku_01a.html

<Abstract>

From Discovery to Recent Studies on Wonhyo's *P'anpiryangnon*

Kim, Cheon-Hak

Dedication verses in the opening part for questions from Wonhyo's *P'anpiryangnon* were introduced first in a journal named the Shoon (書苑) in Meiji 45 (1912). Fragments of the *P'anpiryangnon* in the Otani University Collection was discovered by Kanda Hisanobu (神田久信, 1854-1918) around Meiji 20 (1887). His grandson, Kanda Kiichiro (神田喜一郎, 1897-1984) inherited it. Afterwards, the fragments were studied by Hukihara Shoshin (富貴原章信). His work is regarded as significant in a way that it was the initial study on the *P'anpiryangnon* and formed a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bibliographical, philological, and philosophical research on the *P'anpiryangnon* in Japan and Korea. Furthermore, in April 2002, Kobayashi Yoshinori (小林芳規) reported that the Otani manuscript of the *P'anpiryangnon* had faded marks of marginal notes written in the Shilla language.

The initial study on the *P'anpiryangnon* by Hukihara Shoshin at 1967 shows several important findings. The first remark is the seal of Naikeshiin 「(内家私印)」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Empress Kōmyō (光明皇后, 701-760), was stamped to the back of the paper in the overlapped part of the second and the third sheets. Secondly, although the *P'anpiryangnon* presumably consists of twenty-five sheets containing forty-four sections, only three sheets containing one hundred and five lines are extant. The surviving parts are eight sections, from the seventh to the fourteenth, and dedication verses in the opening part for questions.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of Wonhyo's *P'anpiryangnon*, Hukihara Shoshin provided a preparation stag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anpiryangnon* by expla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Shilla dynasty when Wonhyo flourished and issues of Buddhist logic in regard with Consciousness-only inference (唯識比量). Meanwhile, Shoshin introduced another fragment which consists of eleven lines in the Sakai Ukichi (酒井宇吉) collection in 1969. Therefore, we can say that most of the later studies on the *P'anpiryangnon* are complements or

reinterpretations of Shohin's works. Afterwards, Miyazaki Kenji (宮崎健司) re-examined previous bibliographic studies in his article. His new arguments are as follows. He assumes that the date that Naikeshiin (內家私印) seal was stamped between the lifetime of Empress Kōmyō's life and her death. He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P'anpiryangnon* was transcribed and transmitted by a Korean monk, Shinshō (審祥). He assumed that it would have been transcribed before 733.

The study on the *P'anpiryangnong* was introduced to Korea by Kim Ji-gyun while he was studying in Japan: it was two years later than that the first study was introduced in Japan. Afterwards, the recent distinct research on the philosophy of the *P'anpiryangnon* was done by Kim Sung-chul in 2003. He analyses the text by re-examining thoroughly incomplete manuscripts and the Otani manuscript of the *P'anpiryangnon*. Since then, he has continued to publish several research articles on the *P'anpiryangnon*. Other than his works, there are few articles which partly discuss each section.

Since the *P'anpiryangnon* has been transmitted to Japan from the Edo period in the form of handwriting collection which is called Tekagami (手鑑) and through the *Tojigire* (東寺切) calligraphed by Kōbō-Daishi, it was recently introduced and studied while some fragments and manuscripts were discovered by some collectors. The whole extent parts of the text, which has been known or publically reported so far, are only one-fifth of the *P'anpiryangnon*.

• Keywords

Wonhyo, *P'anpiryangnon*, HukiharaShoshin, Kobayashi Yoshinori, *Tojigire*, Tekagami, Kōbō-Daishi

논문접수일: 2019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1일.